

건강 상담실



◇ 이번호 해답자<가나다순>

배 병 주 서울직접자 병원 산부인과장
오 종 근 국립의료원 흉곽내과장
주 정 빈 서울병원 정형외과 원장

결핵같은 4살 아기
약으로 안 낫는데

(문) 올해 4살난 아기의 어머니입니다.

저희 아기는 폐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삼개월간 꾸준히 의사가 지시해 준대로 열심히 약을 먹었는데, 정기 X레이 검사에서 너무 뜻밖의 나쁜 결과에 어찌해야 좋을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맨처음 아기가 아프기 시작한 것은 6개월전입니다. 열이 많이나고 음식을 못먹지 않고, 음식 냄새도 맡기 싫어하며, 잠기 시작했습니다. 소아과에 데리고 가서 진찰한결과 별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X레이 검사에 공동이 발견되어, 처음에는 의사선생님 처방대로 아이나 300mg과 에탐부롤 100mg을

매일 투여 했었습니다. 아이들 결핵은 잘 낫다고 얘기하고, 의사선생님도 안심하라고 해서 열심히 약만 먹여 왔는데, 뜻밖에도 정기 X선 검진에서 몹시 악화된 증세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의사도 이상스럽다고 고개만 숙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이나, 에탐부롤 외에 파스 3g과 카나마이신 200mg을 격일로 투여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몹시 걱정입니다.

밥도 안먹고, 몸은 쇠약한데, 눈기는 잘 합니다. 장난은 정도에 지나칠 정도입니다. 결핵은 안정을 해야한다는데 아기를 강제로 들어 뉘일수도 없는 노릇이니 딱하기만 합니다.

궁금한것은 아기의 폐결핵에 강력한 화학요법이 말을 안듣는 것은 무슨 까닭이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까

요?

<부산시 초량 2동 유복순>

약이 안 맞는 듯
간검사도 해보도록

(답) 약물치료는 잘 해왔으나 공동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니 약이 환자에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간혹 사진이 바뀌는 수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 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부산 의과대학 뒤 결핵협회 부산지부 진료소를 찾아 처음 사진과 비교, 관찰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병원에서 간의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종근>

소파수술후 월경불순
병원선 난소염이라는
데.

(문) 저는 21세의 미혼여성입니다. 6개월전에 소파수술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월경이 깨끗하지 못 한것 같습니다. 월경이 있으면 오른쪽 부두등위에 약간의 등증을 느끼며 월경이 냉 같은 것과 함께 섞여 나올

니다. 산부인과에 찾아 진찰을 받았으나 난소염이라는 진단이 나와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습니다.

약방에서도 7일분 약도 지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주위의 어떤 사람은 탕약을 먹어 보라고도 합니다만.

저의 병명은 무엇이며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또 탕약은 먹어도 좋은지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남 밀양군 밀양을 조현미〉

수술해준 의사를 다시찾아 보도록

〔답〕 귀하께서 보내 주신 내용으로는 병명을 말씀드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수술 받으신 선생님을 찾아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진찰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탕약에 대해서도 무어라 말씀 드리기 힘든 것 같습니다.

〈배병주〉

대변보고 난 뒤
갈비뼈가 아픈데

〔문〕 저는 21세의 농촌 청년입니다. 제 병의 증세는 왼쪽 갈비뼈 밑이 불쑥하게 튀어나온

상태(달걀 1개 보다 약간 큰 타원형)로서 몹시 켉기면서 아픉니다.

1년 중 가을철에 들면서 부터는 증세가 몹시 더 심합니다.

특히 아침이던 더 심하고 대변중, 대변후에도 통증이 옵니다.

켉기기 시작하면 숨을 들어쉬기가 어려워져 몹시 자연 왼쪽으로 기울어져 그쪽을 땅바닥에 대고 누워있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진통은 얼마간 계속되다 씻은듯 덜춰버리곤 합니다.

이 같은 증세가 국민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작하여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어렸을때 제가 방벽에서 개 흙을 파먹곤 했답니다. 그때 구충

제를 복용해 보았으나 허사입니다.

저의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경기도 강화군 유영술〉

결핵성 종양이 의심스러웁다

〔답〕 우선은 종합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는 판단을 내리기가 곤란하나 결핵성으로 올 수 있는 종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하신다면 의과 전문의를 찾아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 서신내용만으로는 약물 치료법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주정빈〉



입원실이 만원이라 미안합니다